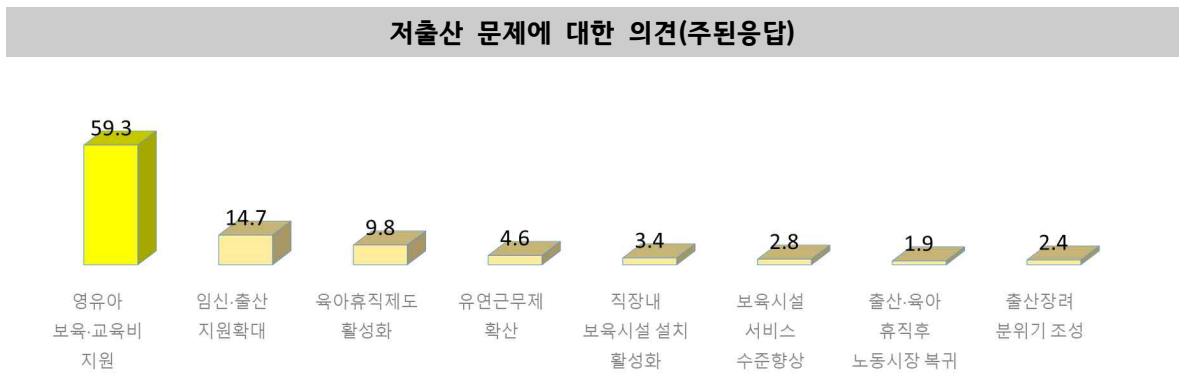


## 2. 가구, 가족

- ▶ 국민 10명중 7명 이상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며, 평소 부부간은 「1시간이상(37.7%)」, 부모와 자녀 간은 「30분~1시간미만(17.8%)」, 형제 자매간은 「1시간이상(4.6%)」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
- ▶ 국민 2명 중 1명은 부모님과 함께 살 의향이 있으며, 그 이유는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(62.5%)」 이기 때문임
- ▶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은 「영유아보육·교육비 지원확대(59.3%)」가 가장 많음



- ▶ 바람직한 자녀수는 「2명(45.7%)」이며, 성별선호도는 남·녀 동일하게 「1.4명」임

## 2. 가구 · 가족 부문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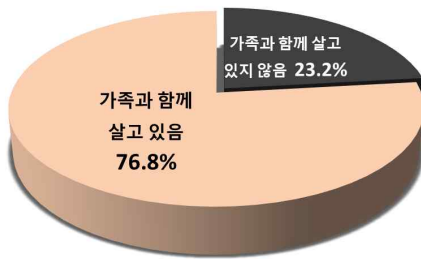
- 2 - 1 가족 간 대화시간
- 2 - 2 부모와 자녀 동거
- 2 - 3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
- 2 - 4 바람직한 자녀 수

## 2 - 1. 가족 간 대화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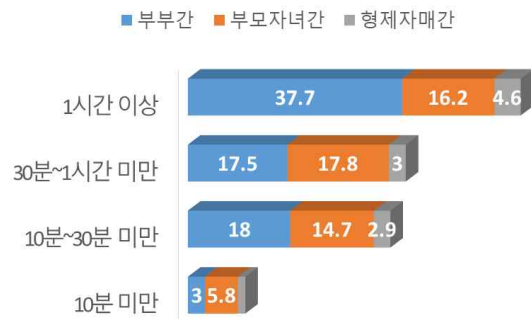
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은 가족과 함께 살고, 3명 중 1명 이상은 부부간에 「1시간 이상」 대화

- 곡성군민의 「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」 비율은 76.8%로 나타나며, 평소 「부부간 대화 시간」은 「1시간 이상」이 37.7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「부모와 자녀」 대화 시간은 「30분~1시간미만」이 17.8%로 가장 높고 「1시간 이상」은 16.2%로 나타남.
- 「형제자매」의 대화 시간은 「1시간 이상」이 4.6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[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가 여부]



[가족 간 대화시간]



<표 2-1~4> 가족 간 대화시간

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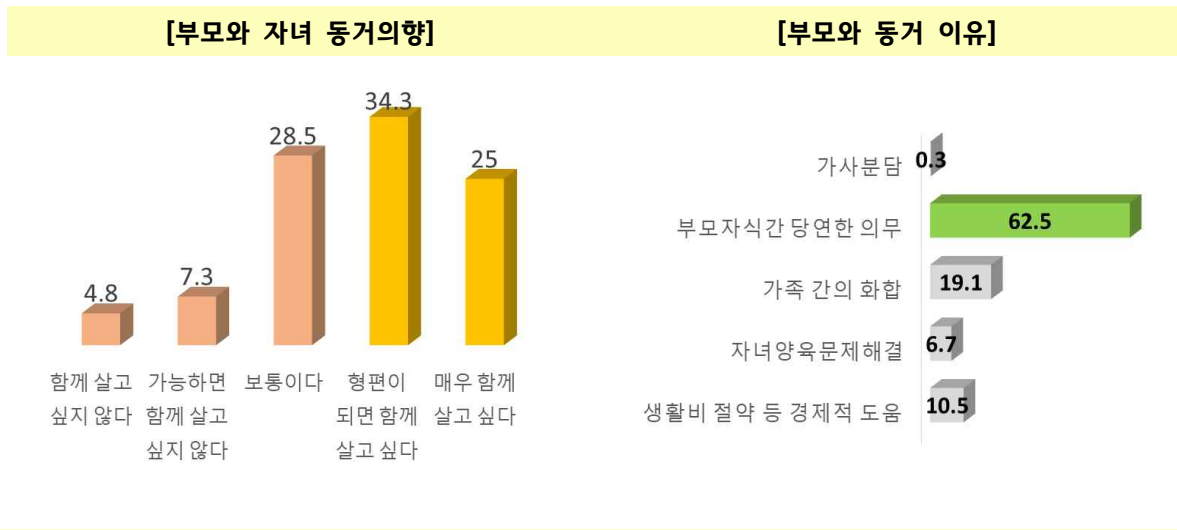
구분	계	가족과 함께 살고 있음	대화시간					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 않음	
			소계	10분 미만	10분~30분 미만	30분~1시간 미만	1시간 이상		해당 없음
2015년	100.0	80.9	100.0	7.2	20.5	21.5	50.8	27.7	19.1
2017년	100.0	76.8	100.0	3.0	18.0	17.5	37.7	23.7	23.2
<관계별>									
부부사이	100.0	76.8	100.0	3.0	18.0	17.5	37.7	23.7	23.2
부모자녀사이	100.0	76.8	100.0	5.8	14.7	17.8	16.2	45.6	23.2
형제자매사이	100.0	76.8	100.0	1.3	2.9	3.0	4.6	88.2	23.2

\*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## 2 - 2. 부모와 자녀 동거

2명중 1명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살 의향이 있고, 그 이유는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」

- 부모님이 「한분이라도 살아계신다」 48.5%, 「한분도 안계신다」가 51.5%로 나타남
- 부모님과의 동거의향은 「함께 살고 싶다」가 59.3%, 「보통이다」 28.5%, 「함께 살고 싶지 않다」 12.1%로 나타남
-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은 이유는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」가 62.5%, 가족간의 화합 19.1% 경제적 도움 10.5% 순으로 조사됨
  - 지역별 부모와 자녀 동거사유에 「부모-자녀 간의 당연한 의무」는 옥과권이 72.2%로 가장 높으며, 석곡권이 68.4%, 곡성권이 52.8%로 지역별로 차이가 남



<표 2-5> 부모와 자녀 동거의향

(단위: %)

구 분	구 분						
	계	함께 살고 싶지 않다	가능하면 함께 살고 싶지 않다	보통이다	형편이 되면 함께 살고 싶다	매우 함께 살고 싶다	
2 0 1 7 년	100.0	4.8	7.3	28.5	34.3	25.0	
< 지역 별 >							
곡 성 권	100.0	6.3	7.8	27.2	38.9	19.8	
석 곡 권	100.0	3.9	5.7	39.6	29.6	21.3	
옥 과 권	100.0	3.5	7.5	24.8	31.0	33.3	
< 성 별 >							
남 자	100.0	4.1	6.8	27.1	31.2	30.9	
여 자	100.0	5.8	7.9	30.3	38.2	17.8	
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## 2 - 3.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(주된응답)

###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「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확대(59.3%)」

-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가장 시급히 지원해야 할 정책은 「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확대」가 59.3%로 가장 높았으며, 「임신·출산 지원확대(14.7%)」, 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(9.8%)」, 「유연근무제 확산(4.6%)」 순으로 나타남

- 성별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「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」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, 「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」와 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」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응답비중이 높음
-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, 상대적으로 미혼자들은 배우자있음, 사별/이혼에 비해 「유연근무제 확산(6.5%)」의 비중이 높았으며, 사별/이혼의 경우 「육아휴직제도 활성화(12.9%)」의 응답 비중이 높았음.

#### [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(주된응답)]



<표 2-7>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의견(주된응답)

(단위: %)

구분	계	영유아 보육·교육비 지원 확대	임신·출산 지원 확대	육아휴직 제도 활성화	유연근무제 확산	직장내 보육시설 설치 활성화	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	출산·육아 휴직 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	출산장려 분위기 조성	기타
2015년	100.0	57.2	11.0	8.9	6.0	6.3	2.7	3.1	3.6	1.2
2017년	100.0	59.3	14.7	9.8	4.6	3.4	2.8	1.9	2.4	1.0
<혼인상태별>										
미혼	100.0	63.4	11.7	9.4	6.5	1.5	0.9	1.5	2.8	2.3
배우자있음	100.0	58.6	15.4	9.0	4.3	3.8	3.3	2.4	2.6	0.8
사별/이혼	100.0	58.0	15.5	12.9	3.8	3.9	3.1	1.0	1.4	0.5
<성별>										
남자	100.0	61.9	14.1	8.9	4.7	2.4	3.0	1.2	2.4	1.5
여자	100.0	56.9	15.4	10.7	4.6	4.3	2.6	2.6	2.4	0.5
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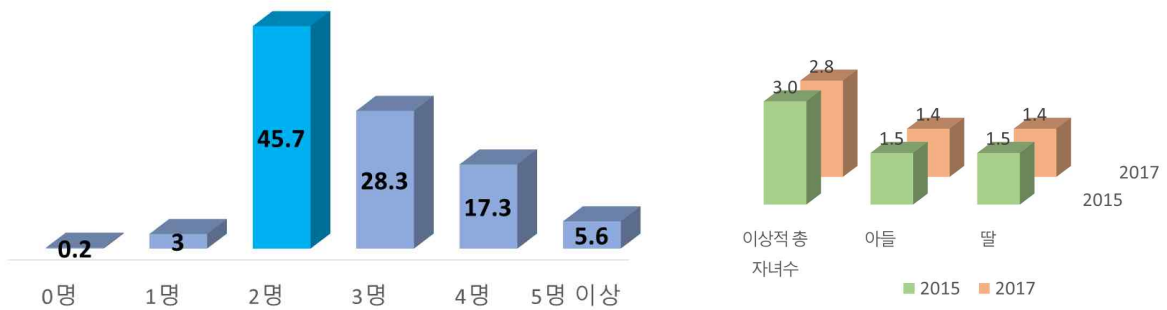
## 2 - 4. 바람직한 자녀 수

바람직한 자녀수로는 2명(45.7%), 성별선호도는 동일(1.4명)

### • 바람직한 평균 자녀수는 2.8명, 아들 평균 1.4명, 딸 평균 1.4명으로 동일

- 범주로 보면 자녀수는 「2명」이 45.7%, 「3명」이 28.3%, 「4명」이 17.3%, 「1명」이 3.0%, 「5명」 이상이 5.6%, 「0명」이 0.2% 순으로 나타남
- 평균 바람직한 자녀수는 2015년 3.0명보다 0.2 감소했으며, 아들과 딸 모두 0.1명 감소함
- 연령별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20대와 30대 연령에서 「2.5명」, 40대와 50대 연령에서 「2.7명」, 60세 이상 연령은 「2.9명」으로 나타남
- 지역별 바람직한 자녀수도 차이가 나며 특히, 석곡권은 「2.9명」으로 타지역보다 높게 조사됨
- 성별로는 남성(46%)보다 여성(55.9%)이 다자녀(3명 이상)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

[바람직한 자녀수]



<표 2-9> 바람직한 자녀수

(단위: %, 명)

구분	계	0명	1명	2명	3명	4명	5명 이상	평균 바람직한 자녀수(명) <sup>1)</sup>		
								총 자녀수	아들	딸
2015년	100.0	1.3	3.6	41.6	24.5	20.1	8.8	3.0	1.5	1.5
2017년	100.0	0.2	3.0	45.7	28.3	17.3	5.6	2.8	1.4	1.4
< 지역별 >										
곡성권	100.0	.5	4.1	47.0	27.4	15.6	5.5	2.7	1.3	1.4
석곡권	100.0	-	2.4	44.9	24.5	20.4	7.7	2.9	1.5	1.3
옥과권	100.0	-	1.9	44.5	31.5	17.4	4.5	2.8	1.4	1.5
< 성별 >										
남자	100.0	0.5	3.9	49.6	28.4	14.2	3.4	2.7	1.3	1.4
여자	100.0	-	2.1	42.0	28.1	20.2	7.6	2.9	1.5	1.5

※자료: 2017년 전라남도·곡성군 사회조사